

# 광산구,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1억3900만원 비용 절감

### 사업 7개월만에 수거 275t 중 156t 사용...전통시장·제조업체 등에 공급 세척·배송 업무 자활센터 위탁 일자리 창출...“재사용처 확대 노력할 것”

광주 광산구가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7개월 만에 아이스팩(얼음 용기) 156톤 38만9000여 개를 재사용하는 등 1억3900만원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광산구는 시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해 종이팩·폐전지 처리에 이어 환경파괴의 주범 중 하나인 아이스팩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자원 순환 경제 조성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한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동주택 등 355곳에 수거함을 설치, 이곳에서 수거한 아이스팩을 선별·세척해 전통시장, 식품제조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광산구가 설치한 수거함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수거함의 36%에 해당한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7개월여간 수거한 아이스팩은 275톤(68만7000여 개)으로, 이 중 재사용된 것은 절반이 넘는 156톤(38만9000여 개)이다.

사회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광산구는 “시민의 종량제 봉투 구매비용 절감 2200만원, 재사용기업의 아이스팩 구매비용 1억 1700만원 절감 등 시범사업 시행 후 1억3900만 원의 사회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배달, 온라인 장비가 일상화되면서 국내 아이스팩 사용량은 연간 3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환경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아이스팩은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 일종인 고흡성수지(SAP) 충전재로 만들어지는데,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걸리고 소각도 어렵다.

광산구는 아이스팩 시범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효율적 수거·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분석했다.

광산구 전역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아이스팩을 수거한 뒤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선별하고 세척해 재사용처로 전달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공급처는 광산구 전통시장, 식품제조업체는 물론 화순, 담양까지 총 39곳을 사전에 파악하고 확보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8월 광산구 내 4개 전통시장 상인회, 평동 우리밀식품 등과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꾸준히 재사용처를 발굴해 왔다. 광산구는 재사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세척한 아이스팩 표면에 ‘안심 사용’ 스티커도 부착하고 있다.

광산구는 아이스팩 세척, 배송 업무를 광산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광산구는 국내 흡수팩, 광주시내권 식품업체 등으로 재사용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국 지자체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공유할 계획이다.

수요자 기피 등으로 폐기되는 아이스팩에 대해서도 재포장, 방향제, 핫팩 등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 23일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토론회에서 광산구의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발표해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구정장은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초기 많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지난 23일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토론회에서 광산구의 자원순환 정책과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과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현재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

져있다”며 “광산구의 ‘작은 몸짓’이 큰 변화의 신호탄이 돼 다른 곳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송정역 발렛파킹 사업, 특정 업체 특혜 의혹 논란

### 공모 없이 선정...협약 20일 전 법인 설립·허위 실적증명서 제출

광주 광산구가 KTX 이용객의 주차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발렛파킹(주차대행)’ 사업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공모절차도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하고, 민간사업 영역에 구 예산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특정 간부 연루설 등도 나오고 있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 송정역 KTX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는 등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광산구는 최근 A업체와 협약을 맺고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주차공간 확보 아이디어로 제시된 ‘발렛파킹’ 시범 사업도 진행중이다. 구는 시범사

업 추진 이후 주차난 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을 확보해 광주공항 인근 등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업체는 일정 금액을 받고 송정역 이용객이 타고 온 차량을 자신들이 확보한 주차 공간에 주차대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발렛파킹은 인천공항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설 등에서는 이용객의 호응도가 높아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는 등 관련 사업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를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광산구가 민간영역인 발렛파킹 사업을 위해 구 예산까지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에서도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업체 선정도 공모절차조차 없이 진행됐으며, 광산구 모 간부와 연루설 등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는 광산구와 협약을 체결하기 불과 20여일전 법인을 설립하고, 협약체결 과정에서 허위 실적증명서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산구가 A업체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독점적인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광산구가 민간 사업영역에 개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송정역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한 용역보고회를 거쳐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송정역 이용객들의 설문조사에 의뢰 호응이 높아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확·찐”자를 위한 ‘나만의 랜선 트레이너’

###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비대면 운동교실... ‘오다! 건강!’도 운영

광주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다양한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광산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지난 13일부터 비대면 운동교실 ‘나만의 랜선 트레이너’를 운영하고 있다. 8주간 주 2회씩 지역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운

동을 돕고 있다. 3회차까지 평균 출석률이 80% 후 반대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광산구는 ‘행복오솔길 걷기 광산’ 프로젝트를 위해 보급한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적정체중을 다시 찾기 위한 ‘오다! 건강!’(오늘 다시 건강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있

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걷기 운동은 물론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방법을 제시한다.

체성분 측정 단 2회 만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이 달까지 1차 체성분 측정에 따른 운동 및 영양상담을 받은 뒤 6개월간 모바일 걷기앱을 활용한 걷기를 실천하고 11월 중 2차 체성분을 측정하면 된다. 모바일 걷기앱을 기반으로 참여자별 평균 걸을 수, 걷기실천율에 따른 체성분 1·2차 결과 변화와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30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오월주먹빵’으로 전국에 광주정신 알린다

### 광산구 마을기업 ‘본빵협동조합’ 수익금 일부 미안마 민주화 지원



광주 광산구 본량동 주민들이 우리밀로 만든 ‘오월주먹빵(사진)’을 들고 전국을 누비며 광주정신을 알린다. 판매수의 중 일부는 미안마 민주화 투쟁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쓰인다.

광주 광산구는 “5·18정신을 알리고 있는 광산구 마을기업 본빵협동조합의 ‘오월주먹빵’의 홍보활동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16일 본빵협동조합(대표 홍기은)과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며 3년차까지 총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산구 본량동 주민 33명이 모여 지난해 3월 설립한 본빵협동조합은 본량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매일살보리빵, 식혜, 수제정 등을 지역농산물로 건강빵, 음료를 만들고 있다.

특히 5월 광주 사연을 담은 ‘오월주먹빵’을 만들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도 알리고 있다. 본빵협동조합은 지난해 5월 광주시로부터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오월주먹빵’을 더 다양한 채널, 방식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5·18 40주년인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오월주먹빵’은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봉쇄돼 전하지 못했던 광주의 가슴 아픈 사연을 포장지 안쪽에 새겼다. ‘오월주먹빵’을 구매하면 5월의 사연이 담긴 ‘오월서한’과 5·18민중항쟁 10일간 시간대별 기록이 동봉된다.

본빵협동조합은 전국 지자체, 기관은 물론 SNS, 라이브커머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오월주먹빵’을 홍보한다. 오월 광주의 이야기,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5·18수업, 5·18 기념행사 등 연계한 판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5월에는 ‘오월주먹빵’에 미안마역서도 담아 배달하기로 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80년 5월의 아픔이 고스란히 재현된 미안마 시민들의 민주화투쟁에 함께하겠다는 의미다. ‘오월주먹빵’을 판매한 수익금 일부는 미안마 민주화지지 성금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기준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